# SAEROUN QT

2026
11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역대상]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집**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금 6:20 AM | 새로운홀

매주 토 6:20 AM | 본당




Saeroun church

QT COLUMN

2026. 11

# 인간관계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10년간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은신처는 유다 광야의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이때 모여든 다윗의 첫 번째 신하들은 4백 명이었는데, 하나같이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환난 당한 자들' 즉, 지금 도망자 다윗처럼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나가던 시절의 다윗이라면 결코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나, 다윗은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갔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눴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자격조건을 구비한 인재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볼품없고 사연 많은 사람들이었다가,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사실 이 광야 아둘람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들 중에는 다윗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보내 주셔서 숫자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1년 반 되던 기간, 즉,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시글락에 본거지를 구축했을 때는 사방에서 인재들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도우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많이 지치고 외롭고 힘들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부하들에게 월급이나 주택, 이렇다 할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곤고한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꼭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도우러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무리가 왔을 때는 다윗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를 갈고 있는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들의 충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광야 생활하면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상처와 회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여기에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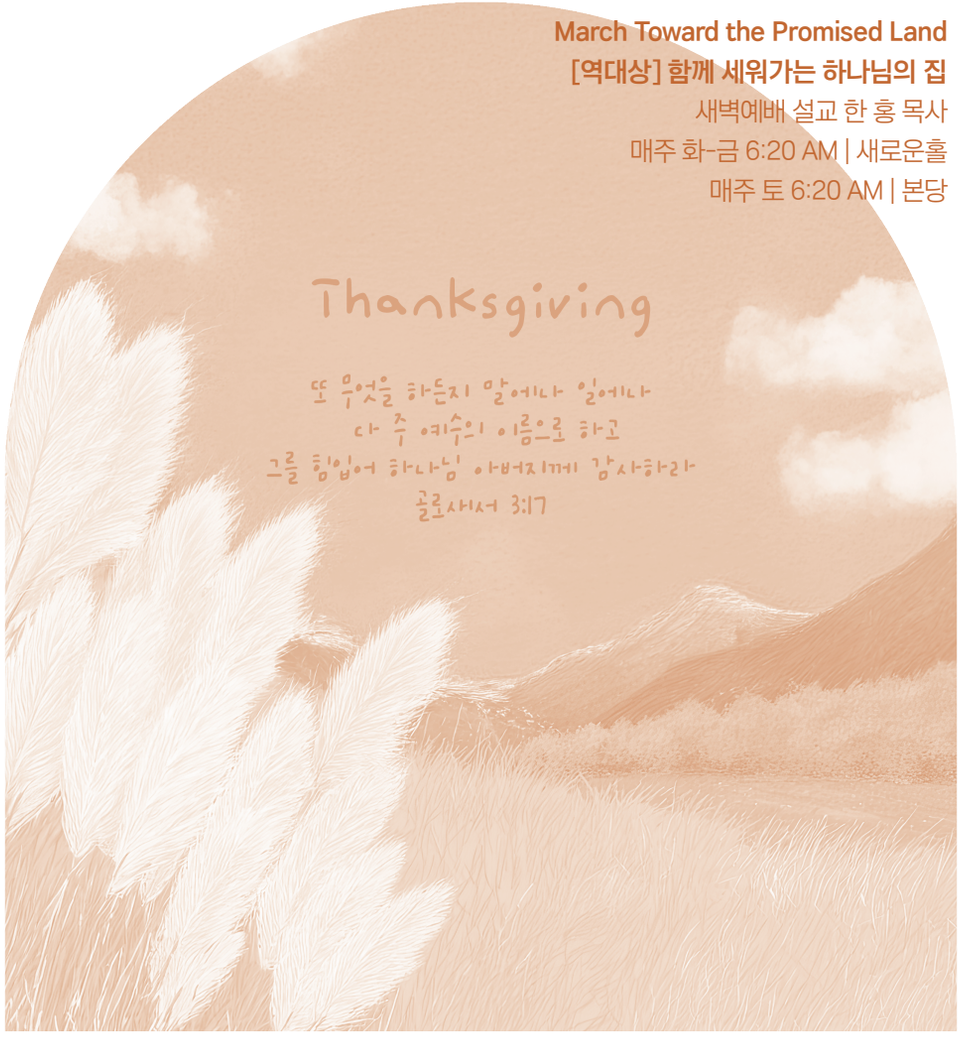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는 자'와 '나를 속여서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는 자'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절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역대상 12장 18절을 보면 "그 때에 성령이 (블레셋 귀순자들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투항한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충성심은 상황이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직은 불안하고 갈등하는 그들의 인간적 충성심을 확고한 영적 결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아마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우리 편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해 줄 것입니다.

사울왕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엘리트 인재들을 힘써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모여든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고 주위에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모으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곁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팀워크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홍

2026 11

#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역대상]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금 6:20 AM | 새로운홀

매주 토 6:20 AM | 본당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 2026. 11

# SAEROUN QT

|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br>마더와이즈 회복과정 개강 | 6 | 7<br>남성사역 가족걷기 |
| 8<br>새가족 136기 1주차 | 9 | 10 | 11 | 12 | 13 | 14 |
| 15 추수감사주일<br>청년부 & 러브미니스트리 주관 감사나눔콘서트 | 16 | 17 | 18 | 19<br>수능기도회 | 20<br>금요찬양집회 | 21 |
| 22 | 23 | 24 | 25 | 26 | 27<br>성탄트리 점등식 | 28 |
| 29 | 30 | 1 | 2 | 3 | 4<br>겨울성령부흥집회 | 5<br>겨울성령부흥집회 |

## 10 OCTOBER

| S | M | T | W | T | F | S |
|---|---|---|---|---|---|---|
| | |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12 DECEMBER

| S | M | T | W | T | F | S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2026.
# 11

| | | | |
|---|---|---|---|
| 1 | 주일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막 4:1-20 |
| 2 | 월 |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 약 1:19-25 |
| 3 | 화 | 너는 힘을 내라 | 대상 19:1-19 |
| 4 | 수 | 승리를 이어가는 용사들 | 대상 20:1-8 |
| 5 | 목 | 다윗의 교만과 하나님의 긍휼 | 대상 21:1-17 |
| 6 | 금 | 대가를 치르는 예배 | 대상 21:18-30 |
| 7 | 토 |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 대상 22:1-5 |
| 8 | 주일 |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막 4:21-25 |
| 9 | 월 |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 마 5:13-16 |
| 10 | 화 | 사명을 이어가는 믿음 | 대상 22:6-16 |
| 11 | 수 |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 | 대상 22:17-19 |
| 12 | 목 |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섬김 | 대상 23:1-5 |
| 13 | 금 | 시대는 바뀌어도 계속되는 섬김 | 대상 23:24-32 |
| 14 | 토 | 준비된 예배자의 섬김 | 대상 25:1-8 |
| 15 | 주일 |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 골 3:15-17 |
| 16 | 월 |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 | 눅 17:11-19 |
| 17 | 화 |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 대상 28:1-10 |
| 18 | 수 |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 대상 28:11-21 |
| 19 | 목 |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 대상 29:1-9 |
| 20 | 금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 대상 29:10-19 |
| 21 | 토 |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 | 대상 29:20-25 |
| 22 | 주일 | 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 | 막 4:26-32 |
| 23 | 월 |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 | 슥 4:6-10 |
| 24 | 화 |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 대상 29:26-30 |
| 25 | 수 |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 대하 1:1-6 |
| 26 | 목 |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 대하 1:7-13 |
| 27 | 금 | 솔로몬 왕국의 부와 권세 | 대하 1:14-17 |
| 28 | 토 | 성전 건축의 목적: 예배 | 대하 2:1-10 |
| 29 | 주일 |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 막 4:35-41 |
| 30 | 월 |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 시 107:23-32 |





# 새로운 QT
##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 중보기도의 순서

###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순예배시

###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SAEROUN QT

01

주일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막 4:1-20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Again Jesus began to teach by the lake. The crowd that gathered around him was so large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ut on the lake, while all the people were along the shore at the water's edge.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in his teaching said: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Listen!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5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o that they did not bear grain.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grew and produced a crop, some multiplying thirty, some sixty, some a hundred times."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Then Jesus said, "Whoever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When he was alone, the Twelve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those on the outside everything is said in parables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so that,"'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and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13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Then Jesus said to them,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parable?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The farmer sows the word.

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Some people are like seed along the path, where the word is sown. As soon as they hear it, Satan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m.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Others, like seed sown on rocky places, hear the word and at once receive it with joy.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Still others, like seed sown among thorns, hear the word;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the deceitfulness of wealth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come in and choke the word, making it unfruitful.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some thirty, some sixty, some a hundred times what was sown."

SAEROUN QT

02

월요일

#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 약 1:19-25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take note of this: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because human anger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that God desires.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Therefore, get rid of all moral filth and the evil that is so prevalent and humbly accept the word planted in you, which can save you.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Anyone who listens to the word but does not do what it says is like someone who looks at his face in a mirror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and, after looking at himself, goes away and immediately forgets what he looks like.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But whoever looks intently into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and continues in it—not forgetting what they have heard, but doing it—they will be blessed in what they do.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3

화요일

# 너는 힘을 내라

## 대상 19:1-19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3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4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삯 내되
7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8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9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10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11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12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4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5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6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17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19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4

수요일

# 승리를 이어가는 용사들

## 대상 20:1-8

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Joab led out the armed forces. He laid waste the land of the Ammonites and went to Rabbah and besieged it,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Joab attacked Rabbah and left it in ruins.

2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David took the crown from the head of their king—its weight was found to be a talent of gold, and it was set with precious stones—and it was placed on David's head. He took a great quantity of plunder from the city

3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써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and brought out the people who were there, consigning them to labor with saws and with iron picks and axes. David did this to all the Ammonite towns. Then David and his entire army returned to Jerusalem.

4 이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In the course of time, war broke out with the Philistines, at Gezer. At that time Sibbekai the Hushathite killed Sippai, one of the descendants of the Rephaites, and the Philistines were subjugated.

5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Elhanan son of Jair killed Lahmi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who had a spear with a shaft like a weaver's rod.

6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In still another battle, which took place at Gath, there was a huge man with six fingers on each hand and six toes on each foot—twenty-four in all. He also was descended from Rapha.

7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When he taunted Israel, Jonathan son of Shimea, David's brother, killed him.

8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These were descendants of Rapha in Gath, and they fell at the hands of David and his m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5

목요일

# 다윗의 교만과 하나님의 긍휼

대상 21:1-17

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3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4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백십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사십칠만 명이라

6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7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8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9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11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 혹 삼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13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칠만 명이었더라

15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6

금요일

# 대가를 치르는 예배

## 대상 21:18-30

18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9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0 그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28 이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7

토요일

#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 대상 22:1-5

1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Then David said, "The house of the LORD God is to be here, and also the altar of burnt offering for Israel."

2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So David gave orders to assemble the foreigners residing in Israel, and from among them he appointed stonecutters to prepare dressed stone for building the house of God.

3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He provided a large amount of iron to make nails for the doors of the gateways and for the fittings, and more bronze than could be weighed.

4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He also provided more cedar logs than could be counted, for the Sidonians and Tyrians had brought large numbers of them to David.

5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David said, "My son Solomon is young and inexperienced, and the house to be built for the LORD should be of great magnificence and fame and splendor in the sight of all the nations. Therefore I will make preparations for it." So David made extensive preparations before his dea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8

주일

#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막 4:21-25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to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and even more.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from them."

SAEROUN QT

09

월요일

#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마 5:13-16**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0

화요일

# 사명을 이어가는 믿음

## 대상 22:6-16

6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 그 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5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1

수요일

#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

## 대상 22:17-19

17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Then David ordered all the leaders of Israel to help his son Solomon.

18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He said to them, "Is not the LORD your God with you? And has he not granted you rest on every side? For he has given the inhabitants of the land into my hands, and the land is subject to the LORD and to his people.

19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Now devote your heart and soul to seeking the LORD your God. Begin to build the sanctuary of the LORD God, so that you may b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the sacred articles belonging to God into the temple that will be built for the Name of the LORD."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2

목요일

#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섬김

## 대상 23:1-5

1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When David was old and full of years, he made his son Solomon king over Israel.

2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He also gathered together all the leaders of Israel, as well as the priests and Levites.

3 레위 사람은 삼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The Levites thirty years old or more were counted, and the total number of men was thirty-eight thousand.

4 그 중의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David said, "Of these, twenty-four thousand are to be in charge of the work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six thousand are to be officials and judges.

5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Four thousand are to be gatekeepers and four thousand are to praise the LORD with the musical instruments I have provided for that purpo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3

금요일

# 시대는 바뀌어도 계속되는 섬김

## 대상 23:24-32

24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Levi by their families—the heads of families as they were registered under their names and counted individually, that is, the workers twenty years old or more who served in the temple of the LORD.

25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For David had said, "Since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s granted rest to his people and has come to dwell in Jerusalem forever,

26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the Levites no longer need to carry the tabernacle or any of the articles used in its service."

27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According to the last instructions of David, the Levites were counted from those twenty years old or more.

28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The duty of the Levites was to help Aaron's descendants in the service of the temple of the LORD: to be in charge of the courtyards, the side rooms, the purification of all sacred things and the performance of other duties at the house of God.

29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제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They were in charge of the bread set out on the table, the special flour for the grain offerings, the thin loaves made without yeast, the baking and the mixing, and all measurements of quantity and size.

30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They were also to stand every morning to thank and praise the LORD. They were to do the same in the evening

31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and whenever burnt offerings were presented to the LORD on the Sabbaths, at the New Moon feasts and at the appointed festivals. They were to serve before the LORD regularly in the proper number and in the way prescribed for them.

32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And so the Levites carried out their responsibilities for the tent of meeting, for the Holy Place and, under their relatives the descendants of Aaron, for the service of the temple of the LOR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4

토요일

# 준비된 예배자의 섬김

## 대상 25:1-8

1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David, together with the commanders of the army, set apart some of the sons of Asaph, Heman and Jeduthun for the ministry of prophesying, accompanied by harps, lyres and cymbals. Here is the list of the men who performed this service:

2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From the sons of Asaph: Zakkur, Joseph, Nethaniah and Asarelah. The sons of Asaph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Asaph, who prophesied under the king's supervision.

3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뱌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As for Jeduthun, from his sons:Gedaliah, Zeri, Jeshaiah, Shimei, Hashabiah and Mattithiah, six in al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father Jeduthun, who prophesied, using the harp in thanking and praising the LORD.

4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맛다냐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As for Heman, from his sons:Bukkiah, Mattaniah, Uzziel, Shubael and Jerimoth; Hananiah, Hanani, Eliathah, Giddalti and Romamti-Ezer; Joshbekashah, Mallothi, Hothir and Mahazioth.

5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All these were sons of Heman the king's seer. They were given him through the promises of God to exalt him. God gave Heman fourteen sons and three daughters.)

6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All these men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father for the music of the temple of the LORD, with cymbals, lyres and harps, for the ministry at the house of God. Asaph, Jeduthun and Heman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ing.

7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팔십팔 명이라

Along with their relatives—all of them trained and skilled in music for the LORD—they numbered 288.

8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Young and old alike, teacher as well as student, cast lots for their duties.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5

주일

[추수감사주일]

#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골 3:15-17**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SAEROUN QT

16

월요일

#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

**눅 17:11-19**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Now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traveled along the border between Samaria and Galilee.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As he was going into a village, ten men who had leprosy 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When he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One of them, when he saw he was healed, ca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and he was a Samaritan.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Jesus asked, "Were not all ten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nine?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Has no one returned to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Then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7

화요일

#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 대상 28:1-10

1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

6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7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8

수요일

#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대상 28:11-21

11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3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14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16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17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 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 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8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9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20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9

목요일

#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 대상 29:1-9

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Then King David said to the whole assembly: "My son Solomon, the one whom God has chosen, is young and inexperienced. The task is great, because this palatial structure is not for man but for the LORD God.

2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With all my resources I have provided for the temple of my God—gold for the gold work, silver for the silver, bronze for the bronze, iron for the iron and wood for the wood, as well as onyx for the settings, turquoise, stones of various colors, and all kinds of fine stone and marble—all of these in large quantities.

3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Besides, in my devotion to the temple of my God I now give my personal treasures of gold and silver for the temple of my God, over and above everything I have provided for this holy temple:

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three thousand talents of gold (gold of Ophir) and seven thousand talents of refined silver, for the overlaying of the walls of the buildings,

5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for the gold work and the silver work, and for all the work to be done by the craftsmen. Now, who is willing to consecrate themselves to the LORD today?"

6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Then the leaders of families, the officers of the tribes of Israel,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and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king's work gave willingly.

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They gave toward the work on the temple of God five thousand talents and ten thousand darics of gold, ten thousand talents of silver, eighteen thousand talents of bronze and a hundred thousand talents of iron.

8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Anyone who had precious stones gave them to the treasury of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custody of Jehiel the Gershonite.

9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The people rejoiced at the willing response of their leaders, for they had given freely and wholeheartedly to the LORD. David the king also rejoiced greatl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0

금요일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대상 29:10-19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6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8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1

토요일

#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

## 대상 29:20-25

20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Then David said to the whole assembly, "Praise the LORD your God." So they all praised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they bowed down, prostrating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the king.

21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숫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The next day they made sacrifices to the LORD and presented burnt offerings to him: a thousand bulls, a thousand rams and a thousand male lambs, together with their drink offerings, and other sacrifices in abundance for all Israel.

22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They ate and drank with great jo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day.Then they acknowledged Solomon son of David as king a second time, anointing him before the LORD to be ruler and Zadok to be priest.

23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So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the LORD as king in place of his father David. He prospered and all Israel obeyed him.

24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All the officers and warriors, as well as all of King David's sons, pledged their submission to King Solomon.

25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The LORD highly exalted Solomon in the sight of all Israel and bestowed on him royal splendor such as no king over Israel ever had before.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2

주일

# 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

막 4:26-32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on earth.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can perch in its shade."

SAEROUN QT

23

월요일

#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

슥 4:6-10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So he said to m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o Zerubbabel: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Almighty.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What are you, mighty mountain? Before Zerubbabel you will become level ground. Then he will bring out the capstone to shouts of 'God bless it! God bless it!'"

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The hands of Zerubbabel have laid the foundation of this temple; his hands will also complete it. Then you will know that the LORD Almighty has sent me to you.

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Who dares despise the day of small things, since the seven eyes of the LORD that range throughout the earth will rejoice when they see the chosen capstone in the hand of Zerubbabel?"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4

화요일

#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 대상 29:26-30

26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David son of Jesse was king over all Israel.

27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칠 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더라
He ruled over Israel forty years—seven in Hebron and thirty-three in Jerusalem.

28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He died at a good old age, having enjoyed long life, wealth and honor. His son Solomon succeeded him as king.

29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As for the events of King David'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they are written in the records of Samuel the seer, the records of Nathan the prophet and the records of Gad the seer,

30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together with the details of his reign and power, and the circumstances that surrounded him and Israel and the kingdoms of all the other land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5

수요일

#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 대하 1:1-6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Solomon son of David established himself firmly over his kingdom, for the LORD his God was with him and made him exceedingly great.

2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Then Solomon spoke to all Israel—to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to the judges and to all the leaders in Israel, the heads of families—

3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and Solomon and the whole assembly went to the high place at Gibeon, for God's tent of meeting was there, which Moses the LORD's servant had made in the wilderness.

4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Now David had brought up the ark of God from Kiriath Jearim to the place he had prepared for it, because he had pitched a tent for it in Jerusalem.

5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But the bronze altar that Bezalel son of Uri, the son of Hur, had made was in Gibeon in front of the tabernacle of the LORD; so Solomon and the assembly inquired of him there.

6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Solomon went up to the bronze altar before the LORD in the tent of meeting and offered a thousand burnt offerings on 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 26

목요일

#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 대하 1:7-13

7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That night God appeared to Solomon and said to him,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Solomon answered God, "You have shown great kindness to David my father and have made me king in his place.

9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Now, LORD God, let your promise to my father David be confirmed, for you have made me king over a people who are as numerous as the dust of the earth.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Give me wisdom and knowledge, that I may lead this people,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God said to Solomon, "Since this is your heart's desire and you have not asked for wealth, possessions or honor, nor for the death of your enemies, and since you have not asked for a long life but for wisdom and knowledge to govern my people over whom I have made you king,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wisdom and knowledge will be given you. And I will also give you wealth, possessions and honor, such as no king who was before you ever had and none after you will have."

13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Then Solomon went to Jerusalem from the high place at Gibeon, from before the tent of meet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7

금요일

# 솔로몬 왕국의 부와 권세

## 대하 1:14-17

14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Solomon accumulated chariots and horses; he had fourteen hundred chariots and twelve thousand horses, which he kept in the chariot cities and also with him in Jerusalem.

15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The king made silver and gold as common in Jerusalem as stones, and cedar as plentiful as sycamore-fig trees in the foothills.

16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떼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Solomon's horses were imported from Egypt and from Kue—the royal merchants purchased them from Kue at the current price.

17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백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They imported a chariot from Egypt for six hundred shekels of silver, and a horse for a hundred and fifty. They also exported them to all the kings of the Hittites and of the Aramean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8

토요일

# 성전 건축의 목적: 예배

## 대하 2:1-10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 솔로몬이 이에 짐꾼 칠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팔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삼천육백 명을 뽑고

3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5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7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9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찧은 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밧과 기름 이만 밧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9

주일

#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막 4:35-41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other boats with him.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so that it was nearly swamped.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He got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He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SAEROUN QT

# 30

월요일

#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 107:23-32

23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Some went out on the sea in ships; they were merchants on the mighty waters.

24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They saw the works of the LORD, his wonderful deeds in the deep.

25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For he spoke and stirred up a tempest that lifted high the waves.

26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They mounted up to the heavens and went down to the depths; in their peril their courage melted away.

27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They reeled and staggered like drunkards; they were at their wits' end.

28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and he brought them out of their distress.

29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He stilled the storm to a whisper; the waves of the sea were hushed.

30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They were glad when it grew calm, and he guided them to their desired haven.

3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unfailing love and his wonderful deeds for mankind.

32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Let them exalt him in the assembly of the people and praise him in the council of the elders.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개인기도제목 - 1주차

| 날짜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기도제목 - 2주차

| 날짜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기도제목 - 3주차

| 날짜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기도제목 - 4주차

| 날짜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11

# 순예배 가이드

01

1. **11월 첫째 주(11/1-7)**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막 4:21-25)

2. **11월 둘째 주(11/8-14)**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골 3:15-17)

3. **11월 셋째 주(11/15-21)**
   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 (막 4:26-32)

4. **11월 넷째 주(11/22-28)**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막 4:35-41)

5. **12월 첫째 주(11/29-12/5)**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막 5:1-20)



[순예배 가이드] 11월 첫째 주(11/1-7)

# 01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막 4:21-25

**지난주 본문 요약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 4:1-20)**

예수님께서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땅의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말씀의 결실을 맺는 비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to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 **말(21절):** 곡식, 가루 등 고체나 물, 기름 등 액체 부피를 측량하는 용기(바구니)를 의미합니다.

* **등경(21절):** 등불이 멀리 비치도록 등잔을 올려놓는 대, 혹은 촛대를 의미합니다.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and even more.

관찰/해석

관찰/해석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from them."





## 적 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 이름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중보 기도제목

1. 우리에게 비추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 모든 은밀한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며,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서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3. 세상의 헛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영적 부요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4: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순예배 가이드] 11월 둘째 주(11/8-14)

# 02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골 3:15-17

**지난주 본문 요약 |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막 4:21-25)**

예수님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하고,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며,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 주장하게 하라(15절):**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나 경기장에서 '상 주다', '경기를 주관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심판"에서 유래한 말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도권(통치권)을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관찰/해석

관찰/해석



##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 이름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
| | | |

## 중보 기도제목

1. 세상의 염려와 갈등과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2.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3.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순예배 가이드] 11월 셋째 주(11/15-21)

# 03 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

막 4:26-32

**지난주 본문 요약 |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골 3:15-17)**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관찰/해석

관찰/해석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on earth.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can perch in its shade."

*** 겨자 씨(31절):**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십자화과(科) 식물로, 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로 언급되나, 성장하면 4-5m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데 훌륭한 조미료로 사용됩니다.



##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 이름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중보 기도제목

1.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2. 내 삶의 작은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성실함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3. 내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나 많은 영혼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4: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순예배 가이드] 11월 넷째 주(11/22-28)

# 04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막 4:35-41

**지난주 본문 요약 | 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 (막 4:26-32)**

농부가 뿌린 씨가 자라나 스스로 열매맺듯,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 같이 작게 시작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로 인해 자라나고 확장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other boats with him.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so that it was nearly swamped.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He got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관찰/해석

관찰/해석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He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 이름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중보 기도제목

1. 어떠한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내 인생의 배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3. 지금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두려워하게 하며,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위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4: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순예배 가이드] 12월 첫째 주(11/29-12/5)

# 05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막 5:1-20

**지난주 본문 요약 |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막 4:35-41)**

예수님께서 함께 탄 배에 거센 풍랑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a man with an impure spirit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This man lived in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anymore, not even with a chain.

* **거라사(1절):**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 속한 한 지역으로 '가다라'라고도 불립니다.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For he had often been chained hand and foot, but he tore the chains apart and broke the irons on his feet.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in the hills he would cry out and cut himself with stones.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When he saw Jesus from a distance, he ran and fell on his knees in front of him.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He shouted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n God's name don't torture me!"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For Jesus had said to him, "Come out of this man, you impure spirit!"

관찰/해석

관찰/해석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Then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egion,” he replied, “for we are many.”

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And he begged Jesus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out of the area.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on the nearby hillside.

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The demons begged Jesus, “Send us among the pigs; allow us to go into them.”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He gave them permission, and the impure spirits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The herd, about two thousand in number,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Those tending the pigs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saw the man who had been possessed by the legion of demons, sitting there,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 people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and told about the pigs as well.

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Then the people began to plead with Jesus to leave their region.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As Jesus was getting into the boat, the man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to go with him.

관찰/해석

관찰/해석

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own people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 이름 | 기도제목 | 응답 |
|---|---|---|
| | | |

### 중보 기도제목

1.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묶임으로 방황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2. 눈 앞의 세상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3.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상의 자리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더욱 온전히 누리며,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5: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26.
11

# 군선교 CES 간증

01

1. 엄지희 집사(C강남공동체)
2. 최창희 집사(W서초공동체)
3. 마성호 형제(156공병대대)



# 씨앗이 싹트는 기쁨

엄지희 집사(C강남공동체)



멘티들과 만나는 토요일은 제게 기쁨과 설렘을 주었습니다. 알아서 해주는 군인정신과 시원한 대답 소리, 멘티들의 따뜻한 배려는 CES 섬기는 날을 더욱 기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기 멘토 때와는 달리 이번 기수는 성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진수, 동하 멘티는 MBTI 마저 똑같고, 약간은 내성적인 듯하였습니다. 군대 와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며 주님을 알게 된 진수 멘티, 모태신앙인 동하 멘티 사이에서 밸런스를 어디에 잡고 CES 멘토링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아셨는지 성령님께서는 8과 기도와 말씀묵상 편에서 단숨에 고민과 밸런스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적용 질문에 동하 멘티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멋진 대답을, 진수 멘티는 예수님은 등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신자인 진수 멘티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등대라고요? 어두움 가운데 저 멀리서 밝혀주는 한 줄기 빛 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며 고백을 하는데,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수 멘티는 가족 중에 혼자 처음 믿기 시작하고, 친구들에도 혼자 믿는다고 하니, 그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분명, 축복의 통로이며, 신앙의 씨앗 일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정신적 지주인 누나의 취업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던 진수 멘티는 보충수업이 끝나고 취업 1차 합격 소식을, 그다음 주 토요일 멘토링 하던 주에 누나의 완벽한 2차 취업 합격을 들었다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냐고 하며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진수 멘티는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서 막 싹트는 것이 보이는 장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적에 주말농장을 한 적이 있는데, 씨를 뿌리고 한 주마다 가보면 이만큼 자라 있고, 또 이만큼 자라 있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었는데, 이번 멘토링 할 때 그런 수확하는 농부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동하 멘티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묵직한 신앙이 느껴지고,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제 눈을 또랑또랑하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에서 열정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너무 제가 믿어서, 불쑥 시킨 기도에도 차분히 기도하는 동하 멘티는  저도 모르게 사위 삼고 싶다 하였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고민 많던 저의 부족한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계속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요한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최창희 집사(W서초공동체)



군대라는 특수한 곳에서 멘토링을 하게 하셔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년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였는데, 군대에서 청년들을 만나게 되니 살짝 긴장도 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담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양준혁 멘티님과 박서준 멘티님을 만나 멘토링을 하면서 군대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의 중요한 시간에 세상과 단절된 상황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양준혁 멘티님의 삶을 주님이 붙드셔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CES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끄셨기에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전역 후에 좋은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던 박서준 멘티님을 군대에서 다시 부르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 붙들어 믿음 잃지 않고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군대에서의 CES라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통해 저의 시야를 넓히시고, 군대라는 특수한 곳에서 영적으로 분투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했던 두 멘티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 영적으로 든든한 중보기도자로 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며

마성호 형제(156공병대대)



양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제가 이 과정을 신청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삶 속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면서 주일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제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과정을 통해 주일에만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양육과정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적고 공부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따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주차까지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CES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과정의 마지막 주차에 선교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깨워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과정이 단순히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고, 제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양육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군대에 들어오기 전 가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군 생활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잊지 않고, 제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군 생활 가운데서도 삶으로 예배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1

# 예수 이름의 비밀 간증

02

1. 최용준 집사(W서초공동체)
2. 강창만 성도(W서초공동체)
3. 이미래A 성도(N서초공동체)



#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발견하다

최용준 집사(W서초공동체)



예이비(예비자반)의 총무이자 인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16주라는 긴 여정을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거창한 능력이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약속된 모임 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신실함'과 성도들을 향한 '진심과 정성'이었습니다. 2~3시간 남짓한 모임 동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삶을 친히 만지실 것을 믿으며 매주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모임 초기에는 표현이 무뚝뚝한 남자 형제님들과의 나눔 속에 대화가 뚝뚝 끊기며 서먹한 공기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가 거듭될수록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겪는 삶의 무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들을 담담히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돌 지난 아기에게 뇌전증 증상으로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조원들은 한마음으로 붙들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아기의 상황이 호전되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목도하면서, 나눔의 자리는 깊은 은혜와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조의 나눔은 매주 은혜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사업장의 리더로 세워진 형제들이 불신 가족을 전도하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눈앞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며 평안을 고백하는 모습,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는 깊은 감격과 감동, 그리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인도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신실한 삶의 고백 앞에 제 부족함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당할 수 없는 영적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16주의 기간 동안 교회의 이전, 선교 사역, 여름성경학교까지 조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처에서 기꺼이 기둥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예이비 과정은 마치 '장교를 훈련하는 과정'처럼, 매주 배운 말씀을 붙잡고 적용과 다짐을 통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했는지 증명해 내는 삶의 예배였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각자의 몸부림은, 잠언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의 신앙을 날카롭게 제련해 주었습니다. 여정의 마무리에 이르러, 조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나 사업장의 자존심, 사역의 부담감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16주의 여정을 마친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양육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예수 이름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 내 힘으로는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때 삶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조원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조원들을 이끌기 위해 선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인도자인 제 안에 선명하게 살아 숨 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친히 일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반브라함의 믿음 고백

강창만 성도(W서초공동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믿음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린 시절 15년을 이단의 그늘 아래에서 보냈고, 군 복무 시절에는 명리학에 깊이 빠졌습니다. 관상과 손금, 사주를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 줄 만큼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돈과 성공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런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두 아이를 허락하시며 제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제 안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부했던 명리학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새 포도주인 말씀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감사하게도 사업은 많은 성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사업을 함께 감당하며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 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러 차례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 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경 공부였지만,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장님에게 전화를 받고 15주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순간, 솔직히 하늘이 노래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성경공부 장소는 "송파 경찰서"였고 제 사업장은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왕복 100km, 지하철로는 70 정거장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매주 가는 길마다 '오늘은 정말 못 하겠다고 말씀드려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 말씀 앞에서 아멘을 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안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리만큼 "예이비" 기간 내내 사업 오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은 쌓이고 시간은 부족해지니 이것도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장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귀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함을 주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조장님, 이 정도면 마귀에게 박카스라도 한 박스 사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조차 단순한 방해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사업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셨고, 동시에 사업에는 성장을 허락하시며 제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의 저는 일이 잘되면 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려우면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저는 50이 다 되어 저희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을 제게 "반브라함"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저 또한 수많은 실수와 기다림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중보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포도나무이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 순종을 넘어 신뢰로

이미래A 성도(N서초공동체)



저는 예이비를 통해 제 신앙의 큰 돌파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돌파구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며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고, 토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한 것 같이 지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관계로 지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신앙이 너무 답답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이비 3장 '주'를 배우며 제가 그동안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제 삶을 저의 타이밍에, 저의 계획에 맞게 통제하려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이비 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순종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다. 말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지 늦게 순종하면 불순종이다. 말 떨어지면 전부 순종 해야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이 문구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저의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며,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면 순종하고,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순종하지 않는 이기적인 순종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 저의 생각과 기도가 차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왜요? 도대체 왜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임을 배운 이후로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뜻에 항복하며, 주님이 응답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일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 안에서 '하나님, 왜요?'라고 말하는 옛사람이 다시 튀어나오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이비 모임을 통해 조원님들의 위로와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 다시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게 되었고, 이로써 방황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제가 예이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소원해 온 것은 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선물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는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며, 저희 가정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아이를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존의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책과 예이비 교육을 통해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해 주신 한 홍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긴 시간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인도자님과, 함께 달려온 조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메모



MEMO



메모

# 메모



## 2026 겨울성령부흥집회

# 성령의 능력으로

12.4(금) 오후 8시 / 12.5(토) 오후 7시
새로운교회 본당



강사 한 홍 담임목사

**4(금)** 절망의 옷을 벗어 던지고
(막 10:46-52)

**5(토)**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
(요 14:16-21 & 14:25-27)

문의: 이사무엘 목사, 카톡ID: saerounchurch

Wednesday Prayer Worship

## 11월 수요기도예배 감사

| | |
|---|---|
| 11/4 이성훈 목사 | 11/11 이준희 목사 |
| 11/18 김대훈 목사 | 11/25 김소리 목사 |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낮 12시 장소 새로운홀(패션관 10층)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 10층 새로운교회 본당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